

해외전력정보

쿠웨이트, 알-카이란 발전담수 플랜트 건설 추진 동향

쿠웨이트 협력기술국(Partnerships Technical Bureau: PTB)은 쿠웨이트의 두번째 IWPP(Independent Water and Power Project)인 알-카이란(l-Khairan) 플랜트 건설 추진을 위해 최근 자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알-카이란 IWPP는 발전능력 2,500MW, 담수처리 능력 125백만 g/d 규모로, 생산된 전력 및 담수는 쿠웨이트 수전력부가 구매하게 된다.

자문을 맡게 되는 미국의 채드분 & 파크(Chadbourne & Parke), 프랑스의 BNP 파리바(BNP Paribas), 독일의 라메이어(Lahmeyer International)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쿠웨이트의 첫번째 IWPP인 알-주르 북부 플랜트의 자문도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발전능력 1,500MW, 담수처리능력 1억 g/d 규모의 알-주르 북부 IWPP의 경우, 6월 이내에 금융조달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MEED(2013.3.17)〉

모로코, 27억 불 규모 사피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동향

27억 불 규모의 모로코 사피 발전소 프로젝트를 개발 중인 컨소시엄은 프로젝트 금융조달 중 20억 불 규모 자금조달을 위해 여러 은행들과 면담 중에 있다.

영국/프랑스 GDF Suez/International Power, 일본 Mitsui와 모로코 현지 업체인 Naverl Holding

210년 11월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임명되었으나 그 이후로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재원은 6억 불 규모의 현지 화 분할 차입,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으로부터 직접 차관 7억 불, 일본무역보험(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NEXI)으로부터 총당되는 분할 차입 6억 불, 국제은행으로부터의 분할 차입 2.2억 불로 나뉘어 조달될 것이라고 전해진다.

4개의 국제은행과 4개의 일본은행은 사우디아라비아계 이슬라믹 개발은행(Islamic Development Bank)과 함께 बैं킹그룹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조달이 준비되면 1,320MW급 석탄화력 민자 발전 프로젝트가 착수될 예정이다.

이는 모로코의 두 번째 민자 발전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국가 전력수요의 27%에 상응하는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피 발전소 프로젝트는 2008년 착수되었으나, 입찰일정 연기와 프로젝트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2009년 모로코 전력청(ONE) 결정으로 인해 진행상 어려움을 겪었다.

〈출처 : MEED(2013.03.03)〉

베트남, 전력분야 단신

베트남 중앙은행은 정부의 승인 하에 2012년 12월 20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전송 전력망(No2) 사업 대출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의 총투자금액은 1,749조억 불에 달하며 500/220kV Pleiku-My Phuoc-Cau Bong 전력망 구축; 220kV cau Bong-Hoc Mon-Binh Tan 전력망 구축; 220kV Cau Bong-Duc Hoa 전력망 구축 등 3개 사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출처 : 베트남 에너지(2013.3.9)〉

Vu Huy Hoang 산업무역부 장관은 금년 건기 동안 중부 및 남부지역의 강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3월 전기 생산량은 1일 3.55억

kWh 수준이지만, 더운 날씨로 인해 3월의 첫 3일간 1일 평균 전기소비량이 3.65억 kWh로 나타났다.

〈출처 : 베트남 에너지(2013.3.5)〉

산업무역부는 지난 4일 Tuyen Quang 성에 Chiem Hoa 수력발전소 준공식이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발전소의 총 투자액은 1,828.4조억 동이므로 매년 1.98억kWh 전기를 공급하고 정부예산에 연 430억 동 규모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산업무역부(2013.3.5)〉